

국어 감정 표현 구문에 대한 연구*

조경순**

|| 차례 ||

- I. 서론
- II. 감정의 언어적 형상화와 구문 설정의 필요성
- III. 감정 표현 구문의 형성과 특징
- IV. 결론

【 】

본고에서는 감정 표현에 대한 구문론적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감정 표현과 관련한 감정동사를 본유적인 것과 비유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감정 표현 구문의 통사·의미론적 특징을 찾아본다. 본고에서는 서술어로 쓰인 감정동사는 감정 표현의 주체, 감정 발생 원인, 구체적인 감정 상태를 다른 어휘에 비해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감정 표현의 언어적 형상화 과정이나 특징 분석은 감정동사가 구성하는 구문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감정동사가 서술어가 되어 구성하는 감정 표현 구문은 감정의 유발 원인과 감정 상태 등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며 인간이 감정을 인식하는 양상을 구조적으로 보여준다. 감정동사 구문은 감정을 느끼는 경험주, 감정을 유발시키는 원인 등이 문장에서 일정한 자리에 위치하는 구체적 사례들이 쌓여 형성되고, 그 구문은 '경험주가 특정한 사태나 대상에 의해 어떤 감정이 일으켜지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유적 감정동사는 인간이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드러내고자 하는 필수요소가 구문에 나타나며, 비유적 감정동사는 본유적 감정동사 구문의 틀의 영향을 받아 감정표현 구문

*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과제번호: 2018-1043)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326차 한민족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2018. 8. 22.)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두 구문을 구별할 수 있다.

주제어: 감정 표현 어휘, 감정 형상화, 감정동사, 구문, 감정 표현 구문, 본유적 감정동사,
비유적 감정동사

I. 서론

인간은 여러 원인에 의해 유발되는 감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감정의 발생 원인은 신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것으로 보는데,¹⁾ 각 원인에 따라 구분 되는 감정이 유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몸을 세계 맞아 아픔을 느낄 수 있고, 누군가와 갑작스런 이별을 맞이하여 아픔을 느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실패를 겪었을 때도 아픔을 느낄 수 있다. 물론 그 아픔의 양상은 다르겠지만 ‘아프다’ 또는 ‘고통스럽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표현 수단으로 언어와 비언어 즉 생리적인 신체적 신호나 몸동작 또는 수신호 등을 들 수 있다.²⁾ 그런데 비언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으나 그 원인이나 구체적 마음 상태를

1) 두산백과에 따르면 감정의 발생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 번째 생리적·신체적 원인으로 감정은 신체에서 원인이 수반되는데, 예를 들어 몸을 의지할 곳이 갑자기 없어지면 공포심이 일어나고, 몸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면 쾌감이 생기고, 몸을 세계 치면 고통의 감정이 발생한다. 두 번째 심리적 원인으로 감정은 요구 수준과의 관계로 생기는데, 예를 들어 성적이 요구수준에 도달하면 성공감,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감이 생긴다. 세 번째 사회적 원인으로 자존심이 손상당했을 때 노여움이나 사람간의 애증도 생긴다. 네 번째 문화적 원인으로 도덕적 정조로 정의감, 결벽감, 분노가 있다. 그리고 과학적 정조는 진리에 대한 놀람과 신비감이 생긴다. (요약)

2) 아픔을 나타내는 찡그림, 좋다는 뜻의 손을 동그랗게 마는 동작 등이 있으며, 몸동작이나 기호는 문화마다 다를 수 있으나 한 문화권 내에서는 공통되어 있다.

나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수단 중 언어 표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가장 구체화할 수 있다.

(1) ㄱ.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다.

ㄴ. 나는 화난다고 친구에게 욕설을 한 것을 후회했다

ㄷ. 그는 할머니의 죽음이 한없이 슬펐다.

예문 (1)과 같이 서술어를 통해 감정의 양상을, 부사와 같은 수식어를 통해 감정의 정도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 표현 단어들은 의미적인 관련성을 맺은 상태로 감정 어휘장을 이룰 것이다. 감정과 관련한 의미를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어휘들을 어종별 또는 품사별로 분류하거나, 개념적 의미가 감정 표현인 어휘와 다의적 의미가 감정 표현인 어휘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하여 감정 어휘장의 체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로 감정 어휘의 어휘적 체계성을 살필 수 있지만 인간이 감정을 어떻게 인지하고 사고하며 특히 다른 어휘에 빗대어 표현하는 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지체계가 간과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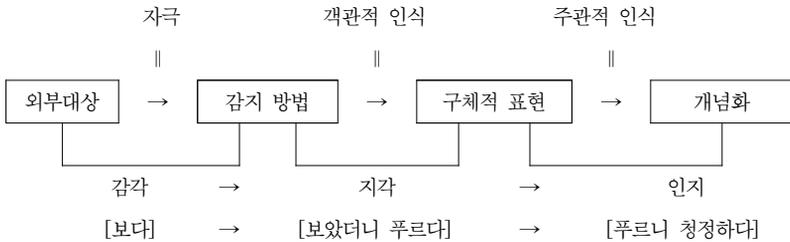
감정 표현 어휘들은 단독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휘와 어울려 구문을 구성하여 감정의 유발 원인과 감정 상태 등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감정 표현 구문으로 묶을 수 있다.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 형식이 일정하게 존재한다면 이 구문들은 특정한 통사·의미적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정훈(2014:20)에 따르면 ‘목적 지향적 구문 형성’ 유형에서는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특정한 구문을 형성하므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특정한 구문을 형성할 것이라는 점에서 감정 표현 구문의 통사·의미론적 특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감정 표현에 대한 구문론적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감정 표현과 관련한 감정동사를 본유적인 것과 비유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그

감정동사가 실현된 감정 표현 구문의 통사·의미론적 특징을 찾고자 한다. 본유적 감정동사는 인간이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드러내고자 하는 필수요소가 구문에 나타날 것이며, 비유적 감정동사는 본유적 감정동사 구문의 틀의 영향을 받아 감정 표현 구문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Ⅱ. 감정의 언어적 형상화와 구문 설정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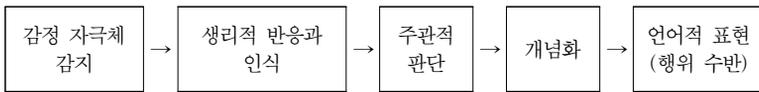
인간은 감정으로 어떻게 인지하고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일까? 변정민(2002:310)에서는 대상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단계를 감각 단계, 객관적 인식 단계, 주관적 인식 단계로 나누고, 이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림 1) 감각, 지각, 인지의 과정

변정민(2002:210)에 따르면 지각은 감각적 경험으로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식의 단계이고 인지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를 개념화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감각은 외부 세계에 대한 의식 현상이고, 지각은 인식 즉 앎의 단계로 가는 과정이며, 인지는 지각 이후에 연속되는 판단을 위한 사고 활동 및 추론, 가정, 짐작 등의 정신 활동이다. 변정민(2002)에서는 ‘감각-지각-인지’에 관한 일반적 과정을 제시했다면, 홍종선·정연주(2009)

에서는 감정 인지와 반응에 초점을 맞춘 과정을 제시하였다. 홍종선·정연주(2009:390)에서는, 감정은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체를 인지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림으로써 발생하며, 그에 따른 신체적 반응을 동반하는 비의도적인 마음 상태라고 하였다. 그리고 감정은 어휘 또는 억양, 발화의 맥락과 발화 내용의 상호 작용 등을 통하여 언어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임지룡(2001:221)에서는 인지언어학적 접근을 통해 감정의 표현 과정을 설명하였는데, ‘기쁨’과 ‘슬픔’의 감정과 그 ‘생리적 반응’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조경순(2013)에서는 기존 논의를 고찰하여 감정 표현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림 2] 감정 표현 과정

조경순(2013)에서는 감정 표현 과정을 인간이 감정 유발 자극체를 감지하면 무의식적으로 생리적인 반응과 인식이 이루어진 다음, 자극체와 생리적 반응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고 개념화하여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감정 표현 과정은 감정 경험주가 중심인 과정으로 자극체에 대한 언어적 표현으로 감정 표현 과정이 마무리된다고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전에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감정을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 이전에 감각과 인지, 주관화와 개념화 단계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³⁾ 그런데 이러한 감정 표현 과정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3) 물론, 변정민(2002), 임지룡(2001), 조경순(2013) 등에서 제시한 각 단계가 선조적이거나 비회귀적이지는 않을 것이나 비교적 계기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언어 표현 그 자체는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감정의 언어적 표현 이전 과정은 경험적 관찰이 어려우며 감정 표현 과정은 언어화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정의 언어적 표현 과정 즉 인간이 느끼고 판단하고 개념화한 감정을 어떻게 언어적으로 구체화 또는 구성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서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은 자신이 느낀 감정을 여러 가지 기호로 구체화하여 표현한다.

(표 1) 감정 표현 수단

표현 수단		표현 사례
몸의 동작, 표정		ㄱ. 기뻐하는 표정, 팔을 들기 등
신체적 접촉 소리(박수 등)		ㄴ. 짹짹  해냈군요. 합격을 축하해요
비언어적 발화(비명, 신음 등)		ㄷ. 와!  축하
언어적 표현	감탄사	ㄹ. 어머니
	어휘	ㅁ. 축하
	어절/구	ㅂ. 합격 축하/너무 기쁘다
	문장	ㅅ. 수지가 시험에 합격했다니 너무 기쁘다

위 상황은 모두 수지가 시험에 합격한 상황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이다. 비언어나 신체언어인 (ㄱ, ㄴ, ㄷ)은 광의의 언어에 포함될 것이고, 어휘나 문장인 (ㄹ, ㅁ, ㅂ, ㅅ)은 협의의 언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광의의 언어든 협의의 언어든 (ㄱ, ㄴ, ㄷ, ㄹ, ㅁ)은 모두 구체적인 맥락을 대화 참여자가 알고 있어야만 그 감정이 어떤 것으로부터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있음에 비해, (ㅅ)은 문장 자체만으로 화자가 느끼는 구체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그 감정 발생 원인까지 알 수 있다. 즉, 감정 표현의 여러 방식 중 자신의 감정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문장이다. 문장

이 구성되기 위해서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하는 주체, 감정의 원인이나 대상,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어휘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장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성분 중 인간의 감정을 언어적으로 형상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어휘는 감정동사이다.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나 특정 어휘 등은 문장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감정동사는 서술어가 되어 문장을 구성하는 만큼 인간이 감정을 인식하는 양상을 구조적으로 보여준다.

(2) ㄱ. 아이고, 조금만 쉬었다 가자.

ㄴ. 농민들은 가혹한 강제 공출에 분노했다.

예문 (2ㄱ)에서 감탄사는 화자의 심리 또는 감정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구체적 감정 상태나 감정 유발 원인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비해, 예문 (2ㄴ)에서 서술어로 쓰인 감정동사 ‘분노하다’는 감정 표현의 주체, 감정 발생 원인, 구체적인 감정 상태를 감탄사에 비해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감정 표현의 언어적 형상화 과정이나 특징 분석은 감정동사가 구성하는 구문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국어 감정 표현과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는 감정동사의 개념을 정립하거나 어휘적 특징이나 의미 유형 등에 주목하는 논의가 많았다. 임은하(1998)에서는 감정동사의 의미 특성과 유형(순간 동사와 비순간 동사)을 살폈으며, 김은영(2004)에서는 감정 자극체를 기준으로 원인 중심 감정동사와 대상 중심 감정동사로 나누어 살폈고, 최석재(2008)에서는 영어 감정동사의 의미 분류를 받아들여 국어의 감정동사를 유형화하였으며, 홍종선·정연주(2009)에서는 인식과 개념화 과정에 초점을 두고 감정동사를 분류하였다. 그리고 조경순(2013)에서는 감정동사를 감정 주체와 감정 자극체가 논항으로 요구

하며 감정 표현의 과정을 거친 동사들로 보고 통사구조에 따라 감정동사 구문을 분류하였다.⁴⁾

기존 논의들에서는 감정동사의 하위 범주를 칠정(七情)에 의해 나누거나 외국의 감정 분류 체계 등을 원용하여 나누는 등 감정동사가 나타내는 감정에 기준을 두고 감정동사를 하위유형화하거나 감정동사가 쓰인 문장의 논항이 가지는 의미적 특징에 주목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아 감정동사를 분류하였다. 그러나 통사적인 특징이나 연역적인 체계를 이용한 감정동사

4) 임은하(1998)에서는 감정동사의 의미 특성을 외현성, 소극적 통제성, 상적 특성으로 보았다. 감정동사의 외현성으로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겉으로 드러난 양상을 기술하려고 할 때 감정동사문을 사용하며, 소극적 통제성은 부분적인 통제성을 감정동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감정동사의 상적 특성에 따라 순간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순간동사와 지속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비순간 동사가 있다고 하였다. 김은영(2004)에서는 감정동사를 감정 자극체가 원인인 경우와 대상인 경우로 분류하였다. ‘기쁘다, 당황하다, 슬프다 ……’ 등을 감정동사의 의미 기능이 감정을 발생시킨 원인에 초점이 있는 원인 중심 감정동사로 보았고, ‘가엾다, 걱정하다, 미안하다 ……’ 등을 감정이 반응하는 대상에 초점이 있는 대상 중심 감정동사로 보았다. 최석재(2008)에서는 감정동사 분류 기준으로 ‘love, joy, surprise, anger, sadness, fear’을 들고 의미 특성에 따라 ‘상태형, 상태/반응형, 반응형’으로 나누었다. 홍종선·정연주(2009)에서는 ‘감동, 감사, 고뇌, 고독, 기쁨, 놀람, 동정, 두려움, 미안함, 분노, 상패함, 수용, 수치심, 슬픔, 욕구, 이완, 허무, 혐오, 후회’로 나누었는데, 전형성을 지닌 동사만 감정동사로 제시하고 나머지는 감각동사, 평가동사, 행위동사 등으로 보았다. 조정순(2013)에서는 감정 주체와 감정 자극체가 논항으로 요구하며, 감정 표현의 과정을 거친 동사들은 모두 감정동사로 보았다.

- ㄱ. N1이 V 가쁘하다, 가련하다, 가분하다, 기쁘하다, 가소롭다, 가엾다, 가엾다.
- ㄴ. N1이 N2를 V 가책하다, 갈망하다, 개탄하다, 걱정하다, 경멸하다, 경애하다, 경의하다.
- ㄷ. N1이 N2에/에게 V 감격하다, 감사하다, 감탄하다, 격노하다, 격분하다¹, 격분하다², 격하다
- ㄹ. N1이 N2로 V 고민하다, 변민하다, 자족하다.
- ㅁ. N1이 N2와 V 교감하다, 사랑하다.
- ㅂ. N1이 N2를 N3에게 V 감사하다.
- ㅅ. N1이 N2를 N3으로 V 믿다.

분류나 구조 분석은 인간이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감정동사 구문에 감정 개체들이 반영되는 양상을 체계적으로 살피는 데는 미흡하다. 통사적 구조에만 치중하여 감정동사 구문을 분석할 경우에는 각 감정동사 어휘의 본유적 특징들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며, 인간의 감정 인식과 인지, 표현 체계의 양상을 파악할 수 없다. 또한, 감정의 유형은 관점에 따라 달라지며 그 수가 몇 개인지는 감정동사 논의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특히, 통사구조에 기반을 두고 감정동사를 살피는 것은 각 논항의 의미적 특징이 범주화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므로 먼저 감정동사 구문의 구성에 대한 논의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감정 표현의 내재적 특징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감정동사 구문의 형성에서 찾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감정동사 구문의 형성을 살피고 본유적 감정동사 구문과 비유적 감정동사 구문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Ⅲ. 감정 표현 구문의 형성과 특징

1. 감정동사 구문의 형성

Goldberg(2004:26)에서 단절 구문은 인간 경험에 기본적인 장면을 반영하는 의미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며, 기본 논항 구조를 포함하는 구문들은 역동적인 장면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 예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무엇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 누군가가 무엇을 경험하는 것,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것 등을 들었다. 그렇다면 구문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정연주(2015), 조경순(2018)에 따르면, 구문은 일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특정한 어휘들에 의존하게 되고 사건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들이 문장 안에 성분들로 반영되던 것들이 적층되고 굳어져 형성된다.

정연주(2015)에서는 어떤 단어 연쇄 뒤에 어떤 단어가 이어진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곧 화자들이 이 전체 단어 연쇄에 대한 ‘덩어리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⁵⁾ 이 연구에서는(2015:192-196) 수여 사태 표현 구문을 예로 들어 구문의 구성 과정을 논의하였는데, 구문은 추상적인 연쇄가 다양한 추상성의 정도를 보이며 구성되어 나가는, 연쇄적 형식에 의미가 직접 연합되어 있는 기호로서의 덩어리이다.⁶⁾

5) 정연주(2015)에서는 국어 화자가 [NP 발화자-가 (NP 수신자-에게) S 피인용문 V 발화동사]라는 형식에 “발화 인용”이라는 의미가 연합해 있는 것과 같은 덩어리 지식들을 언어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6) 조경순(2018)에서도 ‘싶다’가 본용언에 문법적 의미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의미 및 구성 성분과 상호작용하는 것이며, 이는 ‘싶다’를 보조용언 구성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구성단위로 설정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고 ‘NP1이 NP2 V고 싶다’의 일반화 절차를 제시하였다. 아래는 ‘NP1이 NP2 V고 싶다’ 구문이 일반화되는 과정을 보이는 것으로, [바람]의 감정을 경험하는 화자이자 주체가 어떤 대상에 대해 어찌하는 것을 바랄 때 사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문들이 범주화, 일반화되는 과정을 거쳐 ‘NP1(경험주)이 NP2(대상) V고 싶다’라는 추상적인 연쇄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NP1이 NP2 V고 싶다’ 구문의 일반화

구체적 사례 1	내가	친구를	보고	싶다
구체적 사례 2	나는	진실을	알고	싶다
구체적 사례 3	나는	그 섬에	가고	싶다
...	싶다
<일반화>	경험주-이	대상	어찌하는/되는 것	바라다
<구문 구조>	NP1이	NP2	V고	싶다

구체적 사례 1	내가	너한테	책을	봤잖아
<시상>				
구체적 사례 2	영이가	철수한테	편지를	보냈어
<시상>	∴	∴	∴	∴
구체적 사례 3	엄마가	나한테	용돈을	주셨어.
...
<일반화>	↓	↓	↓	↓
	행위자-가	수여자-한테	대상-을	수여동사

(그림 3) 수여 사태 표현 사례문 일반화(정연주, 2015)

김은영(2004)나 홍종선·정연주(2009)에서도 감정동사 구문과 그 구문 형성 조건에 대한 인식을 찾을 수 있다. 김은영(2004)에서는 감정동사를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한 마음이 {생기다/들다}”와 “마음(이/에)~한 상태”의 검증 틀에 모두 적합한 어휘로, 구문의 주어는 항상 ‘경험주’로 실현되며, 어떤 대상이나 사태에 대한 ‘지각’이나, 판단이나 믿음과 같은 ‘인지’의 요소를 전제로 하는 동사라고 보았다. 홍종선·정연주(2009:393)에서는 ‘모질다’와 같은 동사는 일반적인 성질을 나타내지만, ‘나도 모르게 모진 마음이 든다./마음이 모진 상태’라는 표현이 가능하므로, 감정동사를 식별하는 기준이 더 필요하며 그 기준으로 감정동사의 주어는 경험주이어야 한다는 점, 감정 반응의 원인이 되는 논항을 드러낸다는 점, 주관적인 성격을 보인다는 점, 마음 상태를 서술 대상으로 하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⁷⁾

7) 두 연구에서 감정 구문에서 통사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이 관련성이 높음을 논의한 점에서 감정동사 구문에 대한 인식은 찾을 수 있으나 일반화를 통한 구문 구성 논의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3) ㄱ.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긴 것에 감격했다.

ㄴ. 나는 친구에게 도와준 것에 감사했다.

‘감격하다’와 ‘감사하다’는 비교적 유사한 감정으로 볼 수 있는데, 예문 (3)과 같이 두 문장은 구문 구조나 감정 표현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감격하다’는 주체가 감정 원인에 대해 느낀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것에 그친다면, ‘감사하다’는 주체가 감정 원인으로 인한 감정을 어떤 개체에게 행위를 통해 표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리고 ‘감사하다’ 구문에서는 감정 원인이 ‘에게’ 성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고마움]이라는 의미는 동일하지만 감정동사의 어휘 의미에 따라 구문 구조가 바뀌며, 또는 구문 구조에 의해 각 구문에 나타나는 감정 행위 양상이 달라진다.

(4) ㄱ. 나는 그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ㄴ. 그들은 현실의 부조리에 분노했다.

그리고 예문 (4)와 같이 ‘분노하다’가 서술어로 쓰일 때 주어에 분노를 느낀 주체가, ‘에’ 부사어에는 분노의 원인이나 대상이 쓰일 것으로 생각한다. (3ㄱ)의 구문 형식이 (4)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인간이 감정을 언어적으로 형상화할 때 동일한 구조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인간이 감정동사를 서술어로 활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때는 일정한 틀 즉 구문을 형성한다. 각 문장성분에 감정과 관련한 필수적 요소들이 일정하게 배치되는 것으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구문으로 구현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 사례 1	내가	수지의 합격 소식에	기쁘다
구체적 사례 2	그는	노동자의 죽음에	분노하다
구체적 사례 3	나는	엄청난 규모에	놀라다
...			
<일반화>	경험주-이	원인-에	어떠한 감정
<구문 구조>	NP1이	NP2에	V[+감정]

(그림 4) 감정동사 구문의 일반화

위 도식은 [NP1이 NP2에 V_(+감정)] 구문의 일반화 및 형성 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NP1 자리에는 항상 감정을 느끼는 경험주가 오며, NP2 자리에는 감정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자리한다. 그리고 NP2는 ‘에’가 결합한다.⁸⁾ 이러한 구체적 사례들이 쌓여 [NP1이 NP2에 V_(+감정)] 구문이 형성되고, NP1에는 경험주가, NP2에는 감정 유발 원인이 자리하며, 구문은 ‘경험주가 특정한 사태나 대상에 의해 어떤 감정이 일으켜지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⁹⁾

특히, 감정 표현이 문장화된 것을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 유형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구문구조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논의의 장점이 있다.¹⁰⁾

8) 감정 원인에는 ‘에’나 ‘을’이 결합할 수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9) [NP1 NP2 V_(+감정)] 구문을 대표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다른 통사구조의 감정동사 구문도 동일한 방식으로 형성되었다고 본다.

10) 물론, 구문을 의미적 유형에 따라 기쁨 구문, 슬픔 구문, 분노 구문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 (5) ㄱ. 아이는 야단맞은 게 서럽고 슬픈지..
 ㄴ. 그는 할머니의 죽음이 한없이 슬펐다.
 ㄷ. 그는 할머니의 죽음에 (놀랐다/분노했다.)

예문 (5ㄱ)에서는 슬픔의 경험주가 주어로 실현되었고, (5ㄴ)에서는 경험주와 원인이 NP1과 NP2로 실현되었다. NP1에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경험주가, 감정의 원인이 ‘NP2 이’로 실현되면 ‘슬프다’가 결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감정의 원인에 해당하는 NP2에 ‘에’가 결합하면 ‘놀랐다’와 같은 서술어가 결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 감정동사 구문을 설정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로 볼 수 있는데, 특히 감각동사가 감정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도 이 구조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6) ㄱ. 술을 많이 마셔 속이 메스껍다.
 ㄴ. 나는 잘난 체 하는 그의 태도가 메스껍다.

‘메스껍다’가 감정동사로 쓰인 예문 (6ㄴ)에서 NP1은 감정의 경험주가, ‘NP2이’에는 감정의 원인이 나타나는데, 이때 (6ㄴ)은 (5ㄴ)과 구조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구문 의미 또한 동일하다. ‘메스껍다’가 감각동사로 쓰일 때는 ‘NP1이 V’ 구조로 쓰이는데, 감정동사로 쓰일 때는 감각동사로서의 구문구조가 아닌 ‘슬프다’와 동일한 구문구조를 지니며 각 논항 자리에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어휘가 배치되고 구문 의미 또한 유사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본고에서는 (5ㄴ)과 (6ㄴ)의 접점을 동사의 어휘적 의미나 감정 유형에서 찾기 어렵지만 구문구조를 바탕으로 살핀다면 두 감정 표현 구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통사·의미론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슬프다’류의 구문은 중심의미가 감정 표현인 동사가 구문을 형

성한 것이고, ‘메스껍다’류의 구문은 확장 의미가 감정 표현인 동사가 구문을 형성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여 본유적 감정동사와 비유적 감정동사로 나누고자 한다. 본유적 감정동사는 중심의미 즉 사전적/개념적 의미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고 비유적 감정동사는 중심의미가 행위, 사건, 성상 등을 나타내던 것이 은유적 확장을 통해 감정의 의미를 획득한 것이다. 그런데 비유적 감정동사는 구문을 형성할 때 본유적 감정동사의 구문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즉, 비유적 감정동사가 본래 의미로 쓰일 때 사용하지 않았던 감정동사 구문 구조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두 구문을 구분하겠지만 구문론적 논의로 본유적 감정동사와 비유적 감정동사의 통사·의미적 특징을 하나의 층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

2. 구문구조에 따른 감정동사 구문의 특징

이 절에서는 조경순(2012, 2013)에서 제시한 감정동사의 목록을 다시 본유적인 것과 비유적인 것으로 나누고 각각의 의미에 따라 구문론적 특징을 알아보려고 한다. 감정동사 구문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 구문을 구성하는 어휘 즉 감정동사와 명사구의 의미적 특징을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장 구성에 참여하는 서술어나 명사구와 같은 어휘 요소뿐만 아니라 구문의 의미도 함께 살펴야 한다. Goldberg(2004:125)에 따르면, 구문과 서술어 사이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구문들 사이에는 체계적인 일반화의 관계가 존재하는데, 구문은 하나의 연결망을 형성하며 특정 구문의 자질을 유발하는 상속 관계를 따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구문구조를 가진다는 것은 두 구문 사이에 명세화되는 의미는 다르지만, 일정한 구문 의미를 공유하거나 상속된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 (7) ㄱ. 민수가 수지와^{*}를 가다.
- ㄴ. 민수가 수지와/를 만난다.
- ㄷ. 민수가 수지와/를 사랑하다.

[NP1이 NP2와 V]에서 자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주술 구문의 ‘와’는 ‘를’로 교체할 수 없지만, ‘만나다’ 등이 서술어로 쓰인 상호동사 구문에서는 NP2의 [상호성]과 [대상성]에 따라 ‘와’ 또는 ‘를’이 선택되는데, ‘사랑하다’ 구문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볼 수 있다. 이는 감정동사 구문인 (7ㄷ)이 예문 (7ㄴ)과 통사·의미론적으로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말해준다.

감정동사 구문은 조경순(2012, 2013)에서 제시한 바를 따라, 동사의 사전적 의미가 감정 상태를 기술하거나 감정행위를 나타내는 것에 한정하여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¹¹⁾

- (8) 감정동사 구문구조 유형
- ㄱ. NP이 V(+감정) 기뻐하다, 당황하다, 밉다
- ㄴ. NP1이 NP2를 V(+감정) 경멸하다, 증오하다
- ㄷ. NP1이 NP2에/에게 V(+감정) 감격하다, 놀라다
- ㄹ. NP1이 NP2로 V(+감정) 고민하다, 번민하다, 자족하다
- ㅁ. NP1이 NP2와 V(+감정) 교감하다, 사랑하다
- ㅂ. NP1이 NP2를 NP3에게 V(+감정) 감사하다

감정동사의 구문구조는 국어의 일반적인 통사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NP이 V(+감정)]는 주술 구문, [NP1이 NP2를 V(+감정)]는 타동 구문, [NP1이 NP2에/에게 V(+감정)]는 처소 구문, [NP1이 NP2와 V(+감정)]는 상호 구문,

11) 조경순(2012)에서는 감정동사 구문의 의미보다는 감정동사의 개념구조를 분석하였는데, 개념구조 분석 결과 감정동사를 상태성 감정동사와 행위성 감정동사로 나누었다.

[NP1이 NP2를 NP3에게 V_(+감정)]는 수여 구문과 동일한 통사구조를 보이고 있다.¹²⁾ 아래에서는 각 유형별 구문의 통사·의미론적 특징을 살펴도록 하겠다.

주술 구문인 [NP이 V_(+감정)]에서 NP는 감정을 느끼는 경험주이거나 감정의 대상으로 보인다.

- (9) 가. 꼬마가 뽀로통했다.
 나. 벌레가 징그럽다.
 다. 민수가 밉다.

일반적인 주술 구문에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의미역은 다양하나 감정동사 구문에서는 경험주나 대상으로 제한된다. 감정표현 구문은 경험주가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여 구체화한 것을 표현하는 것과 자신의 감정을 감정 원인이나 대상이 되는 존재에게 행위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¹³⁾ 주술 구조의 감정동사 구문에서 경험주가 문장에 실현된다면 당연히 NP1에 경험주가, 경험주가 문장에 실현되지 않는다면 NP1에 감정의 원인이나 대상이 자리한다. 이때 [NP이 V_(+감정)] 구문의 의미는 ‘NP이/으로/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다’로 볼 수 있고 이 구조는 비유적 감정동사 구문에서도 찾을 수 있다.

12) 예문 (8)은 감정동사 구문의 유형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해당되는 감정동사가 한 유형의 구문만 취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감정동사가 다의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 이때는 각각 다른 감정동사 구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13) 감정동사 구문에서 감정의 원인과 대상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수지가 벌레에 놀랐다.’라는 문장에서 ‘벌레’는 감정의 원인인지 대상인지 모호한데, 본고에서는 대상역은 주체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감정동사 구문에서 감정동사가 구체적 행위를 수행하여 NP2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때는 NP2를 대상으로, 그렇지 않을 때는 원인으로 보고자 한다.

- (10) ㄱ. 손바닥이 아프다.
 ㄴ. 그와 헤어져 마음이 아프다.
 ㄷ. 바람이 시원하다.
 ㄹ. 지난 가을 추수가 시원치 않았다.

‘아프다’나 ‘시원하다’의 중심의미는 신체 부위의 감각을 나타내는데, 중심의미로 쓰일 때와 감정동사로 쓰일 때 모두 동일한 구문구조를 보인다.¹⁴⁾ 중심의미로 쓰이던 어휘가 주변의미로 확장되었으나 구문구조인 [NP1이 V_(+감정)]가 바뀌지 않으며 본유적 감정동사 구문 의미인 ‘NP1이/으로/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다’를 그대로 유지함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NP1이 NP2에/에게 V_(+감정)] 구문에서 NP1은 경험주에, NP2는 감정의 원인이나 대상에 해당한다.

- (11) ㄱ. 잇단 사고에 국민들은 경악했다.
 ㄴ. 민수는 엄청난 규모에 놀랐다.
 ㄷ. 수지는 자기를 놀려대자, 애먼 친구에게 성냈다.

예문 (11 ㄱ, ㄴ)에서 NP1인 ‘국민, 민수’는 감정 경험주이고, NP2인 ‘사고, 규모’는 경악, 놀람의 감정이 일어나게 한 원인이다. 그리고 (11 ㄷ)에서 NP2 ‘친구’는 감정 행위의 대상이다. 처소 구문인 [NP1이 NP2에 V]에서 NP2는 주체의 행위가 일어나거나 지향하는 처소를 나타낸다. 동일한 구문 구조를 지닌 감정동사 구문에서 감정 원인이 NP2에 나타날 때 결합하는 조사가 ‘에’로 제한되는 것은 감정 원인을 경험주가 감정을 느끼는 또는

14) 인지의미론적으로 본다면 추상적인 마음 상태를 구체적인 신체 감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본유적 감정동사 구문과 비유적 감정동사 구문의 구문론적 관련성을 살피고자 하므로 인지의미론적 논의는 진행하지 않는다.

지향하는 처소로 보기 때문이다.

- (12) ㄱ. 수지가 아파트에 산다.
- ㄴ. 수지가 학교에 갔다.
- ㄷ. 수지가 축구에 열광했다.

예문 (12ㄱ, ㄴ)에서 행위주의 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처소가 'NP2에'로 실현됐는데, (12ㄷ)에서도 수지가 느끼는 열광이 축구에서 발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NP2의 조사가 '에'로 제한되고, 또 다른 처격 조사인 '에서'로 교체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 (12) ㄱ'. 수지가 아파트에/에서 산다.
- ㄷ'. 수지가 축구에/*에서 열광했다.

조재형(2014)에 따르면, '에'는 [+surface, -empty, -movement]의 의미 특성을 가지고, '에서'는 [-surface, +empty, +movement]의 의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에'는 공간을 차지하지만 속이 차 있어서 표면만을 점유하고 안팎의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에서'는 공간을 차지하고 속이 비어 있어서 안팎의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최홍렬(2018:76)에서는 조재형(2014)의 견해를 아래의 예문으로 설명하였다.

- (13) ㄱ. 철수는 방에서/*에 논다.
- ㄴ. 철수는 방에/*에서 있다.

예문 (13)과 같이 한국어 화자는 방이라는 장소에서 놀 때 방을 움직임이 가능한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인식하며, 방이라는 공간에 어떤 대상이 존재

할 때는 방을 표면적인 위치로 인식한다.¹⁵⁾ [NP1이 NP2에 V] 구문에서 NP2에 쓰인 ‘에’의 기본 의미를 조재형(2014)을 따라 [+surface, -empty, -movement]로 본다면, NP2가 가지는 처소로서의 기본적 속성은 이에 부합할 것이다. 조사의 의미가 NP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NP의 의미 속성에 부합하는 의미격 조사가 결합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처소 구문에서 ‘에’와 결합하는 NP2는 공간의 속이 차 있어서 표면만을 점유할 수 있고 안팎의 이동이 불가능한 곳이다.

- (14) ㄱ. 민수는 건물 붕괴 사고에서 살아남았다/ *경악했다.
 ㄴ. 민수는 건물 붕괴 사고에 *살아남았다/ 경악했다.

예문 (14ㄱ)에서 주체가 사고 사건의 안팎에 위치하며 사고 당시에는 유동적이었음에 비해, 예문 (14ㄴ)에서 경험주는 사고 사건의 내부에 위치하지 않으며 사고는 이미 벌어진 일로 고정적이다.¹⁶⁾ 즉, [NP1이 NP2에 V] 구문의 의미는 ‘처소의 표면에서 주체의 어떤 사태가 벌어지다’로 볼 수 있고, 처소 구문과 동일한 [NP1이 NP2에 V_(+감정)] 구문에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인 NP2 역시 그 원인의 안팎으로 경험주가 이동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에’로 제한된다고 보인다. 즉 [NP1이 NP2에 V_(+감정)] 구문의 의미는 [NP1이 NP2에 V] 구문에서 NP2와 ‘에’의 의미 속성을 은유적으로 상속받아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NP1이 NP2를 V_(+감정)]에서 NP2가 감정 행위의 대상을 가리

15) 최홍렬(2018)에서는 조재형(2014)에서 더 나아가 ‘에’, ‘에서’를 차원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즉, 대상이 면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에’가, 대상이 공간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에서’가 선택된다고 보았다.

16) 유동성과 고정성은 조재형(2014)에서 ‘에’와 ‘에서’를 구분하는 자질로 설정한 [movement]를 감정구문에 부합하게 해석한 것이다.

킬 때를 살펴보자.

- (15) ㄱ. 나는 그를 경멸하는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ㄴ.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ㄷ. 동생은 언제나 형을 샐냈다.
 ㄹ. 청춘을 즐기다.

본유적 감정동사 구문에서 NP1은 감정 경험주에, NP2는 감정 원인이거나 대상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타동 구문인 [NP1이 NP2를 V]에서 NP2는 NP1이 행위주인 경우 행위의 대상이 된다. 감정동사 구문에서 NP2는 유정물인 경우는 감정의 원인이자 대상이 되며, 비유정물인 경우는 감정의 대상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본유적 감정동사 구문에서 ‘에’와 ‘을/를’이 교체 가능한 구문이 발견된다.

- (16) ㄱ. 아마도 제 주장에/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ㄴ. 어머니는 아버지의 승진 소식에/을 매우 기뻐하셨다.
 ㄷ. 나는 친구에게 도와준 것에/을 감사했다.

동일한 감정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구문에서 ‘NP2에’와 ‘NP2을’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는 서술어의 품사 차이 즉 자동사와 형용사 대 타동사로 단순화하거나 능격 구문과 같이 자동·타동이 변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본고에서는 ‘에, 을/를’의 의미적 특성이 감정동사 구문과 상호작용한 결과로 보고자 한다. 이 논의와 연관된 [NP1이 NP2을 NP3에게 V(+감정)] 구문을 먼저 살펴보자. 조정순(2008)에서는 수여동사 구문의 개념구조를 분석하며 구문의 의미로 ‘행위주로부터 수혜주에게로 대상에 대한 소유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제시하고, 소유의 변화를 다시 소유의 이전, 소유의 위탁, 소유의 공유로 나누었다. 그런데 감정동사는 경험주가 느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심의미이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함의하지 않을 수 있다.

- (18) ㄱ. 민수가 편지를 수지에게 보낸다.
 ㄴ. 민수가 짐을 수지에게 맡기다.
 ㄷ. 민수가 노래를 수지에게 가르치다.
 ㄹ. NP1이 NP2를 NP3에게 V[+수여]
- (19) ㄱ. 우리는 살아난 것을 신께 감사하고 있다.
 ㄴ. 우리는 살아난 것에 신께 감사하고 있다.
- (20) 민수는 누리꾼에게 답변한 것을 감사했으나, 마음속으로만 간직했다.

수여동사 구문에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NP2는 대상역으로 행위주로부터 수혜자에게로 이동하지만, 수여동사 구문과 동일한 통사구조의 감정동사 구문 (19ㄱ)에서 NP2는 감정의 원인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NP1이 NP2를 NP3에게 V_(+감정)] 구문은 감정의 원인이 NP2를 통해 어휘화된 것으로 보며, 이때의 NP2는 수여동사 구문과 같은 이동의 대상이 아니라 '을/를'이 가지는 [대상성]이나 [한정성]의 의미격이 실현된 것으로 본다.¹⁷⁾ 예문 (16)의 '에'와 '을/를'의 교체 현상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정동사 구문에서 격조사 교체는 구문 자체의 변화라기보다는 의미격 조사 실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NP1이 NP2와 V_(+감정)]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조경순(2015)에서는 어떤 행위의 참여자 사이의 긴밀한 행위를 나타내는

17) 본고에서는 '을/를, 이/가' 모두를 의미역 조사로 처리한 한정현(2012)의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조경순(2018)을 참조하기 바란다.

의미 속성인 [상호성]을 자질을 지닌 동사는 의미역으로 ‘작용자-작용자’, ‘작용자-대상’ ‘피작용자-기준 대상’을 요구하는데, [상호성]을 지니는 동사 구문에서 [대상성]이 두드러질 때는 ‘을/를’ 명사구가 나타나고, 특수한 의미로서 [상호성]이 두드러질 때는 ‘와/과’ 명사구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를 상호동사 구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감정동사 구문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 (21) ㄱ. 수지가 민호와/를 만난다.
 ㄴ. 수지가 민호와/를 사랑한다.
 ㄷ. 민호가 수지와/를 열애한다.

예문 (21)에서 상호동사 구문과 동일하게 ‘사랑하다, 열애하다’는 의미역으로 ‘작용자(경험주)-작용자(경험주)’일 경우는 [NP1이 NP2와 V_(+감정)] 구조를, ‘작용자(경험주)-대상’일 경우는 [NP1이 NP2를 V_(+감정)] 구조를 나타낸다. 여기에서도 감정동사 구문이 상호동사 구문과 동일한 구문구조를 가질 경우, 상호동사 구문의 의미를 상속받으며 그 통사·의미론적 특징인 [상호성]과 [대상성]에 따른 격 교체 현상까지 동일하게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감정 표현에 대한 구문론적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감정 표현과 관련한 감정동사를 본유적인 것과 비유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그 감정동사가 실현된 감정 표현 구문의 통사·의미론적 특징을 찾아보았다.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 형식이 일정하게 존재하며 이 구문들은 특정한 통사·의미적 특징을 보인다는 전에서 본고에서는 감정 표현 어휘들이 다른 어휘와 어울려 구문을 구성하여 감정의 유발 원인과 감정 상태 등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감정 표현 구문으로 묶었다. 특히, 감정 구문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성분 중 인간의 감정을 언어적으로 형상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어휘인 감정동사에 주목하였는데, 서술어로 쓰인 감정동사는 감정 표현의 주체, 감정 발생원인, 구체적인 감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며 구문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감정 표현의 내재적 특징에 대한 접근을 감정동사 구문의 형성에서 찾고자 하였다. 감정동사 구문은 감정을 느끼는 경험주, 감정을 유발시키는 원인 등이 문장에서 일정한 자리에 위치하는 구체적 사례들이 쌓여 감정표현 구문이 형성되고, 그 구문은 ‘경험주가 특정한 사태나 대상에 의해 어떤 감정이 일으켜지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본유적 감정동사는 인간이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드러내고자 하는 필수요소가 구문에 나타나며, 비유적 감정동사는 본유적 감정동사 구문의 틀의 영향을 받아 감정표현 구문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두 구문을 구별하여 구문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폈다.

본고는 감정동사 구문에 대한 구문론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감정동사 구문의 유형별 통사·의미론적 특징을 밝혔다. 그러나 구어와 같이 실제 언어 사용에서 감정동사 및 감정동사 구문이 사용되는 상황이나 맥락을 면밀히 살펴 구문의 특성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감정동사 및 감정동사 구문의 전체적인 양상을 살피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김기홍, 「감정개념의 정의」, 『언어와 언어학』 19,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1994, pp.1-47.
- 김선희, 「감정 동사에 관한 고찰」, 『한글』 208, 한글학회, 1990, pp.65-90.
- 김은영, 「국어 감정동사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김향숙, 「한국어 감정표현 관용어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김홍수, 『현대국어 심리동사 구문 연구』, 탑출판사, 1989.
- 배도용, 「우리말 신체어의 의미확장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변정민, 「인지 동사의 범주」, 『한국어학』 16, 한국어학회, 2002, pp.307-332.
- 우형식, 『국어 타동구문 연구』, 박이정, 1996.
- 윤평현, 『국어의미론』, 역락, 2008.
- 이기동, 「날말의 의미와 범주화」, 『동방학지』 5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소, 1986, pp.289-332.
- 이원경, 「감정동사의 분류와 특성 분석」, 『담화와 인지』 13-1, 담화와 인지언어학회, 2006, pp.163-182.
- 이익환, 『심리동사의 의미론 - 영어, 한국어와 독일어의 대조 연구』, 역락, 2005.
- 이정훈, 『한국어 구문의 문법』, 태학사, 2017.
- 임은하, 「감정동사 연구」, 『국어교육』 96,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pp.317-337.
- 임지룡,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1997.
- 임지룡, 「‘기쁨’과 ‘슬픔’의 개념화 양상」, 『국어학』 37, 국어학회, 2001, pp.219-249.
- 임지룡, 「기본 감정 표현의 은유화 양상 연구」, 『한국어학』 17, 한국어학회, 2001, pp.135-162.
- 전현정, 「국어 감정 표현의 의미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정연주, 「형용사의 특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형용사절」, 『한국어 의미학』 50, 한국어의 미학회, 2015, pp.189-209.
- 조경순, 「국어 감정동사 구문의 개념구조 연구」, 『한국어학』 56, 한국어학회, 2012, pp.245-273.
- 조경순, 「국어 동사의 감정 의미 획득에 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40, 한국어의미학회, 2013, pp.43-69.
- 조경순, 「을/를과 교체 가능한 ‘와/과’ 명사구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45, 한국어

- 학회, 2015, pp.109-133.
- 조경순, 『‘NP1이 NP2 V고 싶다’ 구문의 구성과 NP2 조사 교체 연구』, 『국어학』 86, 국어학회, 2018, pp.89-119.
- 조재형, 『‘-에’와 ‘-에서’의 기본의미 비교 고찰』, 『언어』 39, 한국언어학회, 2014, pp.1021-1041.
- 최석재 외 3명, 『구조에서 나타나는 감정 표현 관용구의 의미』, 『한국어 의미학』 40, 한국어 의미학회, 2011, pp.43-69.
- 최석재, 『감정동사의 유형과 그 의미특성』, 『어문논집』 58, 민족어문학회, 2008, pp.127-159.
- 최홍렬, 『한국어의 공간인식에 대한 고찰 - 조사의 기본 의미 자질 설정을 중심으로』, 『전남대 BK21+지역어기반문화가치창출인재양성사업단 전국학술대회집』, 2018, pp.69-81.
- 한정한, 『의미역 조사 ‘가’, ‘를’』, 『한국어학』 54, 한국어학회, 2012, pp.1-54.
- 홍종선 · 정연주, 『감정동사의 범주 규정과 유형 분류』, 『한국어학』 45, 한국어학회, 2009, pp.387-420.
- Goldberg, A.,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The University of Chicago, 1995.(손영숙 · 정주리 옮김, 『구문 문법』, 한국문화사, 2004.)

Abstract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Emotional Expression
in the Korean Language

Jo, Kyung-sun

This thesis seeks for the syntactic/semantic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expression construction, comprising of emotion verbs after discussing the necessity of syntactic researches on emotional expression. As the emotion verbs would concretely show the subject of emotional expression, cause for the occurrence of emotion, and the concrete emotional state, the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r the linguistic formation process of emotional expression was approached through the syntaxes of emotion verbs. The syntax of emotion verb structurally shows the aspect of humans' perception of emotions by linguistically expressing the cause for the occurrence of emotion and the emotional state. Construction of emotional expression is formed as the concrete case in which an experiencer feeling emotions and the cause generating emotions are located in a certain place. The syntax means that 'the experiencer has a certain emotion caused by a specific situation or an object'. This thesis divides the syntax of emotion verb into the innate emotion verb and the figurative emotion verb. The innate emotion verb shows the essential elements desired to be revealed in syntaxes when humans express their emotions linguistically. The figurative emotion verbs are composed of the syntaxes of emotional expression with the influence of the syntactic frame of innate emotion verbs.

Key Word: Emotional Expression, Emotion Verbs, Construction, Innate Emotion Verbs, Figurative Emotion Verbs

조경순

소속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 puppetjks@jnu.ac.kr

이 논문은 2018년 10월 29일 투고되어
2018년 12월 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12월 10일 게재 확정됨.